

#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성장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Growth Experience of Youth with Part-time Jobs

구승신

세계사이버대학교 청소년복지상담학과

Seung-Shin Koo(sskoo0903@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들과 그것의 의미를 탐색하고 특히 아르바이트를 통한 성장경험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연구 참여에 사전동의한, 평균 2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기도 거주 고교생 7명을 대상으로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심층면접을 하였다. 연구 결과 확인된 주요영역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찾아나서기’, ‘아르바이트의 고된 현실에 적응하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성장경험하기’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필요성은 소비욕구 충족, 가정경제 보조, 독립성 추구, 사고 및 여가, 자기성장 및 미래준비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적응은 업무 적응과 관련하여 ‘업무 익히기’, ‘견디어내기’ ‘능숙해지기’로, ‘관계’적응과 관련하여 ‘덧새에 적응하기’, ‘중단하기와 지속하기’, ‘유대감 형성하기’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통한 성장경험은 돈에 대한 합리적 관리능력 형성, 정신적 성장, 미래를 위한 준비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였다.

■ 중심어 : | 아르바이트 | 성장경험 | 현상학적 연구 |

### Abstract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ssence and meaning of part-time job experience, in particular, to deduce growth experience through part-time jobs. This study is based on time-experience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developed by the van Manen. For this research, the research data was collected by reviewing high school student part timer in Gyeonggi-do, those who had experience of average of two-year part time work or currently at work, and by undertaking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of them from the March to April of 2017 with the agreements of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Time-experiences, i.e. part-time job experiences of youths, can be arranged as the following subjects. ‘the feeling necessity part-time job and seeking it’, ‘adapting hard life of part-time’, growth-experiencing through part-time work..The necessities for part-time job are feeling up consumption needs, aiding domestic economy, pursuing independence, social and leisure life, self growth and preparing for the future. Adapting of part-time jobs are mastering, enduring, skillfuling work related to work adaption, and enduring ostracizing of old members, stopping and lasting, building bonds related to relationship adaptation. Growth-experiencing through part-time work are formig rational management for money, mental growth, preparing for the futur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uggestion and limitation of the study were presented.

■ keyword : | Part-time Job | Growth Experience | Phenomenological Research |

## 1. 서론

1990년대 중반이후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의 일 혹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지금까지 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학교, 가족, 또래들의 영향에 초점이 맞추어져온 반면, 청소년의 일, 노동의 영향은 주된 관심영역이 아니었다[1]. 그러나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시간제 노동참여의 증가는 아르바이트가 더 이상 비행청소년이나 근로 청소년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2]. 또한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론적 규명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 일을 하고 있거나 하고 싶어하는 10대들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기반사회의 대두와 함께 10대들의 원활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도와주는 동시에 산업현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일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기도 하다[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패널조사의 종단연구[4]에 의하면 비록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정도가 미국에서와 같이 보편화된 수준으로 보기엔 어려운 단계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아르바이트 경험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아르바이트를 지속하는 기간과 근무일수, 근무시간이 증가하는 등 비교적 장기간 일을 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경혜(2000)[5]는 요즘 청소년들은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로서 물질주의, 소비주의 성향이 강하고 일보다 여가를 중시하는 소비지향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이 익숙한 소비문화, 소비생활과 이들의 현실적 구매력, 경제적 자원의 보유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으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만성적인 돈 가뭄에 시달리는데 반해 청소년들이 돈을 벌 기회는 쉽게 주어지지 않으며 부족한 용돈을 메우기 위해 택하는 아르바이트가 기회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종류는 극히 제한적이며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보는 사회적 시각도 매우 부정적이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불우 청소년' 또는 '탈선학생'으로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6]. 무엇보다 노동이란 학생의 본분에서 벗어난다

는 사회적 인식은 근대사회의 형성과 함께 일로부터 유예되는 청소년의 존재 특성에서 기인한다[7]. 청소년기의 학업성취가 대학의 진학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이 나머지의 인생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는 청소년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8]. 반면, 긍정적 관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노동경험은 현재의 생활 및 미래의 진로를 계획하고 건전한 소비자로서의 자세를 형성시켜주며, 자립심과 책임감을 길러주고, 대인관계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보며[9],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회적 관계망의 확대나, 미래 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습득 등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또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하여 장애 직업 목표나 직업 가치, 특정 직업에 대한 선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5]. 서구 사회에서의 연구들은 청소년기의 일과 소비생활과의 관련성, 청소년기 취업경험이 미래 직업에 대한 기대나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이 부모로부터의 독립성 등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청소년기의 일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5]. 이에 반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일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은 주지주의 교육의 대안으로서 일 혹은 노작의 교육적 가치에 꾸준히 주목하여온 반면, 청소년의 일에 대한 규명 노력은 아직은 주로 10대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밝히는 기초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3]. 기존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형화된 모습에서 탈피하여 그들의 목소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긍정 또는 부정 일변도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영향이라는 단순 도식에서 벗어나, 청소년 노동경험의 의미체를 형성하는 그들의 의식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이다[10]. 나아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노동경험을 통해 그들의 인생에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탐색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특히 아르바이트 경험 과정에서 긍정적 의미 부여가 어떠한 맥락을 통해서 형성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연구는 없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적용, 의미부여는 그들의 성장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무

엇을 경험하였으며,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런 의문점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의미를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더 심도 있게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탐색을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강점관점의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여 그들의 특성과 욕구에 근거한 긍정적인 직업선택과 건강한 사회활동의 자리매김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어떠한 맥락에서 시작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과정은 어떠하며, 이러한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교육학, 사회학 등 관련 학문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논쟁의 초점은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두고 이루어져왔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직종은 최저임금 수준 혹은 그 이하를 받는, 안정성이 없거나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 밖에 존재하는 단순 노무직과 서비스 직종의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이유는 가족의 경제적인 궁핍 또는 상업주의와 맞물려 소비욕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져 왔다.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고 있는 것은 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론적 관점에 의한다. 청소년기의 발달단계 특성상 과도한 노동에의 몰입은 의미 있는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의 중대

한 탐색기회를 빼앗길 수 있다고 보며[9], 특히 일로 인해 학업수행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학업성취와 관련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11], 심리, 정서, 사회적 문제의 소지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9]. 이 밖에도 선행연구들[4][8][12-18]에서는 청소년 시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행위는 그들의 학업, 학교 부적응, 비행, 진로 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유성렬(2010)[19]과 황나영 외(2012)[20]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학교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흡연, 음주 등의 비행경험과 열악한 가정배경이 아르바이트 시간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확립과 책임감 및 사회성 향상, 긍정적 직업의식 향상, 취업을 위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8][21-23]. 나아가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기효능감 내지는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24]. 그리고 일과 학과 공부를 병행하는 청소년이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만족할 경우,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또한 성인의 시각에서 보는 질 낮은 수준의 직업이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즐거운 행위'가 되기도 하고, 노동을 통해 학교, 가정에서와는 다른 사회 관계를 맺으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다[25][26]. 이와 같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청소년 시기의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공존하면서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7]. 최근 들어 아르바이트로 인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경혜의 연구[5]는 다양한 측면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의미들을 해석하고 있는데 즉 청소년들의 돈의 필요성을 단순히 소비욕구 뿐 아니라 여가 활용이나 '놀이'로서 선택하게 된다는 것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형화된 모습에서 탈피하여 그들의 목소리에 충실하기 위해 긍정 또는 부정 일변도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영향이라는 단순 도식에서 벗어나,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실제로 가지는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현상학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방법은 인간의 경험에 대한 현상의 의미를 귀납적이고 기술적인 연구방법으로 밝혀냄으로써 경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28].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험의 의미를 보다 입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밴 매년의 생활세계의 기본구조로 신체성, 공간성, 관계성, 체험성의 차원 중 시간체험에 초점을 두어 기술하였다[28]. 밴 매년이 제시한 자료분석은 어떠한 가설과 구체적 방법과 분석도 요구하지 않으며 오직 괄호치기, 직관적 글 읽기와 묘사를 통해 의미를 추출하였다[28].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 과정을 거쳐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의미의 본질을 도출하였다. 먼저 필사된 자료를 면밀히 반복하여 읽으면서 연구 현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 속에 담겨진 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음 청소년에 대한 연구자의 선 이해와 편견을 내려놓고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전체를 주의 깊게 살펴보되 앞서 도출된 의미를 일반적인 형태의 의미로 재진술 하여 구성하였으며, 참여자가 말한 진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다음 연구 참여자들의 언어에서 공통적인 주제를 규명하였고, 그 주제들의 대표성에 억지스러움이 없는지 원자료를 반복하여 읽는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재음미 하였다. 그리고 나서 수집된 자료들을 주제, 범주, 하위범주로 조직하고 철저하게 기술하는 과정을 통해 본질적 주제를 파악해 나감으로써 본질적 의미를 밝히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단계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공통 요소를 통합하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여러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는지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 2. 연구참여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7명으로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며 이들의 총 아르바이트 기간은 평균 2년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노동을 경험하였다. 선정방법은 연구자가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비확률 표집의 한 방법인 유목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경기 지역의 노동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연구자는 이들을 직접 만나 연구의 취지와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인문계 3명, 실업계 3명, 대안학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구성을 보면 4명은 양부모 가정, 2명은 한부모 가정, 1명은 조손가정이었다. 한부모 가정(모두 모자가정)과 조손가정의 경우 공적지원과 모(조모)의 경제활동(모두 비정규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양부모 가정의 경우도 부가 일용적인 경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비밀보장 원칙에 의해 참여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참여자 (성별/나이)	학교 계열	가구 구성	아르바이트 기간 및 내용
사례 1	철수 남/18	인문	한부모	27개월 (음식점 서빙)
사례 2	영수 남/17	실업	한부모	30개월 (배달, 전단지배포)
사례 3	기영 남/18	실업	부모	13개월 (카페, 편의점)
사례 4	준영 남/17	대안고	부모	22개월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사례 5	진희 여/18	실업	조손	33개월 (카페,음식점서 빙)
사례 6	지영 여/17	인문	부모	25개월 (패스트푸드점)
사례 7	영주 여/18	인문	부모	18개월 (문서입력)

연구자들과의 면접은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었다. 면접내용은 미리 양해를 구한 후 녹음을 하였

으며, 이를 모두 풀어서 자료화하였다. 면접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2~3차례 만나 약 1시간 이내로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면담은 참여자들의 아르바이트 현장과 근접한 공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수행하였으며, 아르바이트 진후 시간 등 참여자들이 편안한 시간에 이루어졌다. 면담의 질문은 개방형과 반구조화된 질문을 병행하였다. 첫 만남에서는 연구의 동의 과정과 연구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한 시간을 가졌고 본 면담에 이르러서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의 생각과 느낌 등에 집중하였으며, 면담을 마친 후에도 궁금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전화를 하거나 SNS를 이용하여 재확인 하는 과정을 거쳤다.

### 3. 윤리적 고려와 연구의 엄격성

연구자는 면담 시작 전 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참여자의 자발성을 재확인 하였다. 이후 연구에 대한 안내와 함께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참여자의 권리, 비밀보장 및 익명처리, 녹음에 대한 동의여부 등을 설명하여 이해시켰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Lincoln과 Guba(1985)[29]의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의 네 가지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연구의 적용능력과 질을 높이고자 함이었다.

사실적 가치는 현상의 생생함에 대한 사실적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면담 내용에 대한 참여자들의 일치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적용성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가 또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청소년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연구 주제에 맞는 자료 및 선행연구들의 탐색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일관성의 충족을 위해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관련 논문, 기사, 문학, 영화 등을 검토하였고, 청소년 전문가 및 현상학 연구 전문가로부터 연구의 전과정분석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중립성을 위해서 연구 전 청소년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편견, 판단 등을 ‘괄호로 묶고’ 끊임없이 현상을 새롭게 보고

자 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직접 필사한 녹취록을 많은 시간 동안 반복하여 읽으면서 본질적 주제의 파악과 경험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자 스스로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IV. 연구 결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된 주요영역은 (1) 아르바이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찾아나서기 (2) 아르바이트의 고된 현실에 적응하기 (3) 아르바이트를 통해 성장경험하기로 나타났다. 이들 영역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어떠한 동기에서 시작되고, 어떤 경험을 통해 적응 및 유지되는지 보여주었다. 또 중단하게 되는 경우와 구별점을 찾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내적으로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탐색할 수 있었다.

### 1. 아르바이트 필요성 느끼고 찾아나서기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동기를 살펴보기 위해 면접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돈’에 대한 필요성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돈의 사용처는 다양하였으며 ‘용돈 마련’이라는 맥락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고싶은 것 마음껏 사기’, ‘가정형편에 보탬이 되기’, ‘부모님에게서 독립하기’, ‘친구들과 관계유지하기’, ‘여가활동하기’, ‘미래준비하기’, 등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필요성의 탐색을 통해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도 탐색할 수 있었다.

#### 1) 소비욕구 충족 :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요”

청소년들이 힘든 아르바이트를 자처하는 이유는 사고 싶은 것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컸다. 부모님에게서 받는 용돈이 이들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아르바이트에 눈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청소년들이 구매를 원하는 것은 부모님들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값비싼 의류나 가방, 악세서리, 코스메틱 같은 것들이었다. 또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

각종 기념일 등을 챙겨야 하는데 이때는 소비지출이 늘어나게 되는데 부모님에게 말하기가 곤란한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다.

사고 싶은 것이 많은데 부모님께서 주는 용돈은 너무 부족해요. 또 내가 사고 싶은 옷이나 가방은 엄마는 이해 못할 거예요.. 비싸기도 하고.. 또 있는데 왜 사냐고 할 거예요. 그래도 꼭 갖고 싶으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사는 거예요 (기영)

(용돈) 일주일에 만원씩 4만원 받아요. 교통비나 핸드폰비, 책값 등은 (부모님이) 내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 돈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친구들과 학교 끝나면 펜시점같은데 가면 너무 사고 싶은 것이 많아요. 보통 눈으로만 봐요. 그 돈으로는 꿈도 못꾸죠. 그래서 정말 갖고 싶으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주)

## 2) 가정형편 보조 : “어려운 집안살림을 도와야해요”

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르바이트비를 부모님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드리고 있었다. 이는 소비욕구의 충족과는 또 다른 경우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신의 용돈을 스스로 마련함은 물론 나아가 부모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유지하려고 하며, 장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나도 일을 해서 보태야 해요. 할머니가 나라에서 받는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식당에 나가 일하는데 힘들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일해서 보태야 해요. (진희)

엄마가 일하는데 건강이 안좋으셔서 일을 많이 하면 힘들어하시고 또 돈을 많이 못버세요. 엄마가 버는 돈만으로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보태드려야 해요. 엄마가 버는 돈보다 제가 버는 돈이 훨씬 많은데요. (영수)

## 3) 독립성 추구 : “부모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자연스럽게 부모와의 독립을 추구하는 시기이다. 부모와 십대자녀 간의 갈등은 청소년의 독립추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부모와 자녀는 학교성적, 친구문제, 귀가시간, 용돈사용, 부모에 대한 불복종, 청결과 정리정돈과 같은 일상적인 일로

갈등을 겪는다[30].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돈을 관리하면서 부모의 간섭이나 갈등을 피할 수 있다.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면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친구 만난다거나 하면 친구만 만나고 공부하지 않는다고 야단치세요. 그러면서 다른 것도 뭐라하시고, 차라리 돈 달라는 말 하지 않는게 나아요.(기영)

돈 달라고 하면 어디에 쓰냐고 꼭 물어보세요.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좋게 안보세요. 그게 엄마가 이해 못하는 거거든요. 부모들은 저희들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세요. 공부밖에 모르죠. 친구, 연예인, 취미..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한심하게 봐요. 그냥 간섭받지 않고 싶은데 돈은 아쉽고...(지영)

## 4) 사교와 여가활동 : “친구만나서 하고 싶은 일 해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이유에는 청소년기의 특징인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욕구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같은 취향을 가진 또래와 친구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비슷한 소비를 하거나 비슷한 활동을 통해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또래집단과 같은 문화를 향유하고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강렬한 우리 의식’은 청소년기의 특성으로 또래친구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같이 어울리고자 하는 욕구로 청소년기의 생활의식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31].

‘애들이 뭐 보거나 사러 가자고 하며 안갈 수가 없어요. 일단 같이 가는데 돈이 없으면 불안하죠. 어떤 때는 눈으로만 보기도 하고 친구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는데 매번 그럴수는 없잖아요. 웬지 초라해보이고 친구들도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가서 뭐사고 뭐하자이러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돈을 만들어야 해요.(영주)

친구들과 시험끝나는 날 흥대가서 놀고 사고 먹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돈이 많이 들어요. 어떤 때는 부모님에게 ‘거짓말’로 돈을 받아서 해결하기도 하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시험이 끝나거나 날씨 좋은 주말같은데 (흥대 같은데 가는)정기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그때를 대비해서 돈을 마련해놔야 해요. (지영)

또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돈의 필요성이나 액수가 더 크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의 내용이나 질적인 면보다는 돈을 얼마나 주는지가 더 관건이 된다. 이런 경우는 아르바이트의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일단 돈을 받으면 그만두면 경우가 많다.

#### 5) 자아성장과 미래준비 : “미래를 위한 준비죠”

청소년에게 있어 아르바이트는 때로 미래준비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도 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신의 숨어있던 성향이나 잠재력을 발견하기도 한다. 또는 자신의 성향을 변화시키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

사실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한 준비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현장은 열악하고 노동강도가 센 편이며, 패스트푸드점이나 전단지 알바 등 종류도 제한되어 있다. 그나마 좋은 아르바이트들은 대학생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중, 고등학생들이 할 만한 일자리는 더 열악한 편이다. 그럼에도 미래준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 현장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공간만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표와 관련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한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자신의 미래 계획을 달성해나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지속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빨리 사회에 나가고 싶었어요. 대학에 진학하기 보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에 익숙해지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일하면서 사회란 이런 곳이구나 알게 됐고.. 나중에 아무래도 사회에 나가면 공부만 한 친구들보다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수)

제가 사람들과 잘 못 지내요.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성격을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는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는 곳이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대개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지고 성격도 많이 활발해졌다고 할까? 이제는 어디가든 사람들과 잘 지낼 자신감이 생겼어요.(준영)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음식점 주방에서 보조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직접 주방장님들이 음식을 하는 것을 보거나 보조하면서 많이 배우죠.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지영)

## 2. 아르바이트의 고된 현실에 적응하기

다양한 동기와 욕구를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지만 처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열악하고 고된 아르바이트 현실에 당황하게 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이 재미있거나 적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적당히 일을 하고 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아르바이트 현장에 뛰어들게 된다. 하지만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며칠 일을 하면서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아르바이트 경험도 매일 매일이 고달픈 날들의 연속이었다.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는 내 인생 최악의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었고, 밤을 꼬박세우고 일을 해야했고, 몸이 아파도 참아가면서 일을 해도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은 고작 100만원도 채 안 되는 돈이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받은 돈은 쓰다보면 한순간이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전전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이들이 적응해야 하는 부문은 ‘업무’와 ‘관계’이다. ‘업무’적용 부문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경험은 ‘업무 익히기’, ‘견디어내기’, ‘능숙해지기’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또한 ‘관계’적용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접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경험으로 ‘뒤틀세에 적응하기’, ‘중단하기와 지속하기’, ‘유대감 형성하기’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는 김정현(2009)[2]의 연구와 동일하다.

### 1) 업무적응

청소년들은 다양한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다. 편의점, 패밀리레스토랑, 음식점, 카페, 배달, 전단지 배포 등 대부분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된다. 유성렬(2005)[19]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의 열악한 아르바이트 환경으로 법정 최저임금(이보다 더 낮은 경우도 많다), 어린 청소년들이 감당하기엔 어려운 노동강도, 개인의 자율성과 전혀 상관없이 매뉴얼화 되어있는 업무 등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열악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나름대로 적응해나가고 있었다.

## (1) 업무 익히기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숙지하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현장은 보통 매뉴얼이 있고, 주인 또는 먼저 일하고 있는 누군가가 그 일을 알려준다. 하지만 체계적인 교육시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교육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청소년들은 매뉴얼과 선임자들의 지시로 눈치껏 업무를 배워야 한다. 보통 일하는 첫날부터 선임자들과 거의 같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가르쳐주는 것을 체득해야 하고 가르쳐주지 않은 부분까지 눈치껏 끼워맞춰야 한다. 첫날임에도 실수하는 부분은 가차없이 주인이나 선임의 비난이 따라온다. ‘일하면서 알아서 배워야 하는’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청소년들은 매뉴얼에 따라 어깨너머로 배우고 스스로 체득하게 된다. 일에 적응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개인차가 심한 편이다. 눈치가 빠르고 손이 빠른 청소년들은 업무를 익히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 예전에 손님으로 갔을 때 일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자신의 업무에 적용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또 자신이 익숙한 아르바이트 업종을 선정해서 가는 청소년은 보다 빨리 일에 익숙해지는 편이다. 하지만 어떤 청소년은 일에 더디게 적응한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처음 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아르바이트 상황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한센 등 (Hansen. et al, 2000)[32]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업무 스트레스는 역할 간 갈등을 포함하며, 이는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일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눈치껏 알아서 배우는 거죠. 처음에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면 대충 어떤 일을 하게 되는구나 짐작이 가죠. 먼저 일해본 친구들에게도 대충 듣고.. 일할만 곳이라고 생각이 들면 결정하고 가요. 대충 짐작한 것과 일치하기는 해도 실제로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진희).

아무래도 눈치가 빨라야 해요.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일에 익숙해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실수도 많고 야단도 많이 듣고.. 단순한 일인데도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또 긴장해서 인지 (일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만둘까 고민도 많이 하고.. 일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있을 수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익숙해져야 해요(지영).

## (2) 견디어내기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매일 매일이 고달픈 날들의 연속이었다.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구하여 들어갔지만 좋았던 기억보다는 많이 힘들고 고단했던 날들의 연속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 등은 보장되지 않았다. 원래 지시받았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야했고, 작은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다. 특히 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선택한 경우와 자신의 성향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을 선택한 경우 청소년들은 더 견디어내기 힘들어했다.

홀에서 카운터를 보는 줄 알고 갔는데 서빙과 주방일, 배달까지도 해야 했어요. 계란찜을 만들거나 주먹밥을 싸는 것은 전부 제 몫이었어요. 카운터에 주먹밥싸는 도구를 가져다 놓고 주문받고 계산하면서 하루종일 주먹밥을 만들었어요. 가까운 지역은 직접 배달도 가고..무지 힘들었어요(철수).

아무리 더위도 에어컨을 켜지 못하게 했어요. 더위도 참고 일하라고 했어요. 식사시간이 되도 계속 일을 해야했고.. 손님이 없을 때 틈틈이 일하면서 식사를 했어요, 나중에는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보이고(지영).

사장이 없어도 CCTV로 계속 감시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했어요, 앉아있었다고 뭐라 하고.. 항상 감시받는 느낌이 정말 싫었어요. 손님이 없어서 스트레칭 좀 하고 화장실 좀 고쳤는데 그것가지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주어진 일외에도 유리창이나 냉장고를 닦는 등 눈치껏 일을 찾아 해야했어요 아무튼 가만히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어요(진희).

## (3) 능숙해지기

청소년들은 힘들고 고된 반복적인 일상의 업무에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노하우로 업무에 익숙해지게 된다. 더 나아가 시간에 끌려다니기 보다 시간을 즐기면서 보내는 법도 알게 된다. 사장이나 점장 눈을 피해 스마트폰을 보기도 하고 SNS를 하기도 한다. 좀 한가하다 싶으면 ‘눈치껏 쉬기’도 한다. 아르바이트 기간이 오래될수록 시간을 때우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서 아르바이트 일 그 자체를 즐기는 청소년도 있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되고, 사장의 인정을 받기 위해 출근수범하고 자신만의 업무 노하우를 발휘하기도 한다. 이들은 노동의 자율성, 곧 업무수행 방



식과 수행 속도를 조절하는 등 업무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그만큼 확장되는 것을 경험한다[19][33].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었다고 해야 되나? 익숙해져서. 지금은 주문이 밀려도 당황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실수도 거의 없어요. 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측할 수 있고.. 손님들의 불만을 처리할 수도 있고. 감이랄까? 그런 것이 생긴 것 같아요.(준영)

배달과 홀을 같이 하다보니 배달 음식을 어떻게 포장하면 더 빨리 안전하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노하우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음식포장을 잘못해서 배달 중에 얼어지고 그랬거든요. (철수)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시간에 어떻게 (전단지들)주면 사람들이 받는지. 어떤 사람들이 받는지 등을 터득하면 훨씬 빠른 시간에 배포할 수 있어요, 배달도 노하우가 있어요. 나름대로 지도를 그리는 거죠. 시간배분도 하고,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곳을 갈 수 있어요. (영수)

## 2) 관계 적응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현장은 ‘축소된 사회’이다. 청소년기는 사회성을 키우는 시기이다[30].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그동안 맺어왔던 인간관계를 한 차원 더 넓혀나가게 된다. 고용주와의 관계,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 매장을 찾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적응에 업무 적응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관계’ 적응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접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경험으로 ‘덧새에 적응하기’, ‘중단하기와 지속하기’, ‘유대감 형성하기’의 과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덧새에 적응하기

청소년들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현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먼저 사장이나 점장 등 소위 상사가 있는데 이들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는 존재이다. 이들의 눈에 잘 보여야 아르바이트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이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일 적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먼저 들어온 동료는 청소년의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기 때문에 특히 관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새로 들어오는 신입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서열을 내세우는 소위 ‘덧새’

분위기도 존재한다. 덧새는 청소년보다 아예 나이가 많은 성인보다는 비슷한 연령대의 청소년들간에 이루어진다. 비슷한 또래이므로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들어온 일수에 따라 선배로 대우받기를 원하며 특히 일에 있어서는 선배의 방식을 강요받기도 한다. 동료들간의 관계형성은 아르바이트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을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사장은 신입이 들어왔을 때 그 일에 빨리 적응하느냐에 관심이 있고 동료들간의 관계형성에 보통 관심이 없고 따라서 특별한 개입을 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매장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하나 고민이었어요. 업무를 잘 모르니까 가르쳐주고 배우는데.. 그게 대개 불편하더라고요. 친절하기는커녕 툭툭 내뱉듯이 말하고. 하는 일마다 간섭하고 잔소리하고...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일을 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고. 내가 볼 때는 내 방식이 훨씬 난데.. 그게 덧새 같더라고요. (기영)

처음 알바를 할 때 제가 제일 어렸어요, 당연히 저를 무시하셨어요. 너가 그 나이에 뭘 알겠냐는 식이었어요, 그러니 허드렛일만 시키는 거예요. 커피만드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설거지, 걸레로 바닥청소.. 뭐 그런 일만 시키고. (지영)

덧새요? 장난아니예요. 조금 늦으면 신입주체에 늦었다고 하고. (일이 끝나도)제일 늦게까지 있어야 하고. 온갖 잡일은 다 계류이예요. 음식을 주문받거나 커피를 내리거나 하는 것은 항상 먼저 들어온 동료들이 했어요. 거의 한달 정도? 저 다음에 누군가 신입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진희)

### (2) 중단하기와 지속하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겪는 고용주 및 동료와의 관계 등 인간관계의 질은 아르바이트를 중단하거나 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족과 학교 외에 새롭게 형성되는 공식적인 성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형성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지속하고자 하지만 상처를 받는 경우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결국 아르바이트를 중단하게 된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동기가 ‘돈을 벌기’이지만 결국 아르바이트를 중단하거나 지속하는 데는 인간관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이 힘든 것은 웬만큼 참을 수 있었는데... 나만 빼고 멍치는 느낌? 이런 분위기에서는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신경쓰이고.. 불편하고, 결국 일주일만에 그만두었어요. (지영)

아르바이트 분위기가 대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곳은 짐장부터 트집잡고.. 모두들 같구나 듯한 분위기였는데 그런 곳에서는 오래 일하기가 힘들어요. 살벌하죠. 하지만 지금 일하는 곳은 서로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래요. 여기서도 일이 힘들어도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준영)

### (3) 유대감 형성하기

동료들간에 존재하는 ‘텃새’를 잘 건디고 버티는 청소년들은 그들이 부리는 강요나 지시등을 당연하게 여기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무리에 합류되어진다. 또 선배들이 부리는 ‘텃새’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신입을 자신의 무리에 합류시키게 된다.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형성되어짐을 느끼게 된다. 청소년들은 일하면서 때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놓일 때 동료로부터 받는 심적 지원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중단을 막아내는 힘이 되어준다. 동료들간의 유대감은 청소년들이 일에 적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제 일하는 이유도 변화시키게 된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게 되면 아르바이트 현장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공간이 아닌, 사람들과의 만남과 공유의식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선택되어지는 즐거운 교류의 장이 되어진다. 이는 열악한 아르바이트 환경과 최저임금까지도 감수하는 힘을 기르게 만든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일터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사회화되어진다’는 연구가 있다[34].

저희 직장은 동료들간에 대개 친해요. 누군가 힘든 일이 생기면 수다떨면서 풀어요. 힘든 일을 남에게 미루지도 않고, 일이 쉬운 곳은 아니지만 그만 두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저도 여기가 가장 오래된 것 같아요. (준영)

일도 일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통해) 인간관계 맺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을 기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하러 가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들어도 동료들보러 간다는 마음으로 한결 부담감이 덜어지는 것 같아요.(지영)

## 3. 아르바이트를 통해 성장경험하기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현장의 고된 노동은 별반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알게 되면서 버티내기 시작한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고된 아르바이트 현장에 적응하고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고통을 극복하기 시작한다. 이는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성장으로 가는 길을 찾는 시발점이기도 하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속에서도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김정현(2009)[2]도 학생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아이들이 일을 찾고 적용하는 과정 안에서 어른들이 미처 발견하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서 스스로 한뼘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육혜련(2014)[27]도 가출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가출청소년들이 처음에는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터널같았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멘토를 만나면서 삶의 희망을 보게 되고, 아르바이트를 단순히 돈벌이가 아닌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하게 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통한 청소년들의 성장경험은 크게 1) 돈에 대한 합리적 관리능력 형성 2) 정신적 성장경험 3) 미래를 위한 준비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 1) 돈에 대한 합리적 관리 능력 형성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음을 이야기하였다. 아르바이트의 동기는 모두 ‘돈’이다. 돈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은 달라도 무언가를 위해 돈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은 동일하다. 하지만 막상 임금으로 돈을 손에 쥐게 되었을 때 생각이 달라짐을 깨닫게 된다. 돈을 번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돈을 어디에 써야할지를 신중하게 고민하게 된다. 즉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돈 관리’를 배우게 된다. 문성호(2003)[33]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돈을 어떻게 관리하게 되는지, 시간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동안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서 쓸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일을 하고 돈을 받으니까... 못쓰겠는거예요...어떻게 번 돈인데...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생처음 계획이란 것을 세우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쓸 것인지...(영주)

목돈을 받으니까 가족들과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한턱 내고...하다보니 모래알처럼 빠져나갔어요. 힘들게 일한 날들에 비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계획도 세우고, 적금통장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꽤 많았어요. (진희)

## 2) 정신적 성장 경험

아르바이트 현장은 축소된 사회로 청소년에게는 생소한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다. 위계질서 등 조직의 질서를 준수하며 남을 배려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 등을 배우게 된다. 아르바이트 현장은 청소년들에게 성인과 같은 성실함과 책임감을 요구하게 되고,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부리던 짜증이나 어리광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자기관리나 시간관리 등을 배우게 된다. 즉 아르바이트를 통해 청소년들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며 내적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들은 가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에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문성호(2003)[3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나와의 싸움이지...일을 하기 전에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는데 늦지 않으려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해요.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대개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요. 친구들과 놀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는 것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준영)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을 피해 공부하거나 친구들과 놀고... 시간관리랄까? 그런 것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계획을 세워 일정을 짜는 습관이 생겼어요. 또 오늘 할 일, 일주일동안 할 일, 한달 할 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활동하죠. (영수)

친구들이 많이 변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성질 더럽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부드러워지고...뭐 그렇네요. 어른스러워졌나?...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대하다보니 참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내 하고 싶은 데로 하는 것이 절대 허용되지 않으니깐. (준영)

## 3) 미래를 위한 준비

청소년에게 있어 아르바이트 경험은 '미래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아르바이트에 대해 처음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됨을 제시하였다. 즉 처음의 단순한 돈벌이 수단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청소년도 있지만 대부분 돈벌이 외에는 목적이 없으며 더구나 미래와 연관지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청소년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가까운 미래에 다른 아르바이트나 직업현장에서 주어질 일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나타나, 새로운 일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많은 고행이 따른다는 것을 체득하였다. 하지만 힘든 장애물을 극복해내는 의지와 방법도 체득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참아내고 거기서 배우고 있다. 문성호(2003)[33]도 청소년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이들에게 자립심과 책임감을 기르고, 사회환경을 통해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르바이트는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는 곳이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대개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떤 사람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등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사회생활이구나 하고 느꼈죠. 이제는 어디가도 사람들과 잘 지낼 자신감이 생겼어요(준영)

부모님의 문서입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보다는 더 예쁘게 문서를 만들 수 있었어요. 하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책도 찾고 인터넷도 찾고 선생님에게 물어도 보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영주)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본질

과 의미를 그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 7명을 심층면접을 하였으며,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동기인 ‘용돈 마련’이라는 맥락 속에서 ‘사고싶은 것 마음껏 사기’, ‘가정형편에 보탬이 되기’, ‘부모님에게서 독립하기’, ‘친구들과 관계유지하기’, ‘여가활동하기’, ‘미래준비하기’ 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의 고된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친다. 적응해야 하는 부문은 ‘업무’와 ‘관계’이다. ‘업무’적응 부문은 ‘업무 익히기’, ‘견디어내기’ ‘능숙해지기’의 과정으로 구성되고, ‘관계’적응은 ‘덧새에 적응하기’, ‘중단하기와 지속하기’, ‘유대감 형성하기’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아르바이트를 통한 청소년들의 성장경험은 크게 ‘돈에 대한 합리적 관리능력 형성’, ‘정신적 성장경험’, ‘미래를 위한 준비’였다. 많은 선행연구[8][12][13][22-24]들이 청소년아르바이트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제시한 것에서 나아가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어떠한 맥락에서 시작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이러한 경험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용돈 마련’에서 시작됨은 많은 연구들과 공통된 점이다. 하지만 ‘용돈 마련’이라는 공통된 맥락 속에서도 다양한 욕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다양한 맥락은 아르바이트의 지속성이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기존연구[19]와 공통된 점이다. 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의 고된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는 아르바이트의 효과나 결과에 초점을 맞춘 기존연구[13][14]와 구별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적응 부문이 ‘업무’와 ‘관계’로 나누어짐을 발견하였다. 이는 김정현의 연구[2]에서도 보여진다. 청소년들은 눈치껏 일을 배우고 처음에는 실수를 연발하며 불편하지만 이를 견디면서 점차 능숙해지는 과정을 거친다. 관계 면에서도 덧새에 적응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것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과정에서 긍정적 의미 부여가 어떠한 맥락을 통해서 형성되

는지와 이러한 의미부여가 성장과 성숙으로 연결됨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단순한 용돈벌기로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고된 경험을 청소년에게 부과하지만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은 청소년을 성숙과 성장에 이르게 한다. 기존의 연구[2][5]들에서도 이러한 점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열악한 환경, 저임금, 질 낮은 업무,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아르바이트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유의미성을 재구성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기 아르바이트 경험이 그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생태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경혜(2000)[5]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한 의미부여의 차이는 청소년 개인 성향,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동기, 일에 대한 가치부여, 일터나 부모로부터의 지지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정현(2009)[2]은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재해석함으로써 의미를 찾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환경 변화에 대한 욕구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아르바이트 환경’과 ‘다양한 일자리’들이 마련되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김혜경 외(2014)[10]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안심 알바 터전의 확장을 주장하였다. 단순 서비스 직종이라 할지라도 업무 역량의 발전이 있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노동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안심 알바 터전은 청소년들의 성장에 일조할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중·고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학교가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학교에는 진로상담부가 있지만 진학이나 취업상담에 주력하며 아르바이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진학이나 취업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현재보다는 미래와 관련이 있지만 아르바이트는 현재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며 장래 직업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볼 때 학교에서 관여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다고 본다. 학생들이 건전한 직업관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보를 많이 확보하고 학생들을 안내하고 지도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잘 적응하고

때로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노동법이나 관련 법령은 청소년 노동에 대해 노동 가능 연령 제한, 법정 노동 시간, 노동 종류나 강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하고 규제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편이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 지역의 고등학생 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기에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더욱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우므로 2개월간의 면접조사로 결과를 확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단연구를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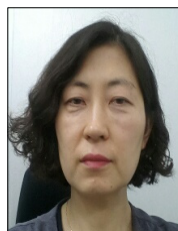
- [1] H. W. Marsh,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Character building or a subversion of academic goals?," *Sociology of Education*, Vol.64, July, pp.172-189, 2003.
- [2] 김정현, "학생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문화기술지,"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제3호, pp.69-98, 2009.
- [3] 이광호, "청소년 아르바이트(일)의 사회적 의미 이해에 관한 연구 -청소년 생활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 *청소년복지연구*, 제3권, 제2호, pp.25-39, 2001.
- [4] 유성렬,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변화추이 및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패널자료를 중심으로,"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습대회, pp.187-229, 2006.
- [5] 한경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1권, 제2호, pp.153-180, 2000.
- [6] 조한혜정, 2000년 6월 28일 중앙일보,
- [7] 이광호, "90년대 이후 청소년 존재혁신과 사회적 대응방식 변화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3호, pp.331-349, 2003.
- [8] 황나영, 이자형, "전문계 고등학교 여학생 아르바이트의 경험과 의미," *교육인류학연구*, 제14권, 제3호, pp.233-260, 2011.
- [9] 김예성, *학교청소년의 시간제 노동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 [10] 김혜경, 이광호,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이중 노동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10호, pp.23-51, 2014.
- [11] D. M. Hansen and P. A. Jarvis, "Adolescent employment and psychosocial outcomes: A comparison of two employment contexts," *Youth society*, Vol.31, No.4, pp.417-436, 2000.
- [12] 김예성,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학교적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 노동-학업 간 갈등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2호, pp.213-244, 2007.
- [13] 박창남, "청소년의 재학 중 노동경험이 고교졸업 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제7권, 제4호, pp.107-128, 2010.
- [14] 김성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와 비행 간 관계의 검토," *경찰학논총*, 제7권, 제2호, pp.431-458, 2012.
- [15] D. Entwisle, K. L. Alexander, and L. S. Olson, "Early work histories of urban you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5, No.2, pp.279-297, 2000.
- [16] H. W. Marsh and S. Kleitman, "Consequences of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Character building, subversion of academic goals, or a threshold?,"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42, No.2, pp.331-369, 2005.
- [17] K. C. Longest and M. J. Shanahan, "Adolescent work intensity and substance use: The mediational and moderational role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 Vol.69, No.3, pp.703-720, 2007.
- [18] K. C. Monahan, J. M. Lee, and L. Steinberg, "Revisiting the impact of part-time on adolescent adjustment: distinguishing between selection and socialization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Child Development*, Vol.82, No.1, pp.96-112, 2011.
- [19] 유성렬,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제7권, 제4호, pp.47-66, 2010.
- [20] 황나영, 이자형, 이기혜, '가정배경과 학교적응을 중심으로 한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시간 결정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1호, pp.223-250, 2012.
- [21] 정경은, 이혜경,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성숙도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제7권, 제2호, pp.59-79, 2005.
- [22] 구효진, 최진선, "아르바이트 경험과 청소년들의 경제의식 및 근로의식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4호, pp.39-71, 2006.
- [23] M. K. Johnson, "Further evidence on adolescent employment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 Health Soc. Behav*, Vol.41, pp.276-294, 2004.
- [24] H. Markus, S. Cross, and E. Wurf, *The role of the self-system in competence. In Steinberg, R. J. & J. Kolligan, Jr. (eds.), Competence Considered*, pp.205-226, New Haven, CT:Yale University Press, 1990.
- [25] Y. Bersen, "Exploitation or fun? The experience of teenage employment in suburban America,"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Vol.35, pp.319-340, 2006.
- [26] Camerson Allen, Greg, J. Bamber, and Nils Timo, "Fast-food work: are Mcjobs satisfying? (job satisfaction in fast-food restaurants," *Employee Relation*, Vol.28, No.5, pp.402-420, 2006.
- [27] 육혜련, "가출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6권, 제1호, pp.327-353, 2014.
- [28] M. van Manen, *Phenomenology & Practice, Volume1(2007)*, No.1, pp.11-30, *sensitivepedagogy, London, Ont.:Althouse Press;Albany, NY:SUNY Press*.
- [29] Y. S. Lincoln and E. G. Guba,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 [30] 정현주,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겪는 경험*,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31] J. Barling, K. Rogers, and K. Kelloway, "Some effects of teenager's part-time employment: the quantity and quality of work make the difference,"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16, pp.143-154, 1995.
- [32] D. M. Hansen and P. A. Jarvis, "Adolescent employment and psychosocial outcomes: A comparison of two employment contexts," *Youth society*, Vol.31, No.4, pp.417-436, 2000.
- [33] 문성호,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pp.1-101, 2003.
- [34] M. A. Park, *Relationship of the juvenile working experience and career maturity*, The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2015.

저 자 소 개

구 승 신 (Seung-Shin Koo)

정희원



- 2004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16년 12월 ~ 현재 : 세계사이버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심리상담, 군사회복지실천